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Temperament, Parenting, and Behavioral Inhibition of Korean Toddlers

정 옥 분**

Chung, Ock Boon

Kenneth Rubin***

박 성 연****

Park, Seong Yeon

윤 종 희*****

Yoon, Chong Hee

도 현 심*****

Doh, Hyun Sim

Abstract

Mothers of 113 Korean toddlers completed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TBAQ*) and Child Rearing Practice Report(*CRPR*). Observations of mother-child dyads in novel situations involving unfamiliar settings and adults assessed child's behavioral inhibition. *Nonsocial inhibition* were measured by the amount of time each child spent in physical contact with his/her mother in free-play episodes. *Adult-social inhibition* was based on child's behavior when an unfamiliar adult requested that the child approach her as she presented them with toys or activities. Results showed that *TBAQ* Social Fearfulnes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nonsocial and adult-social inhibition. *TBAQ* Pleasure was correlated negatively and *TBAQ* Anger Pronenes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dult-social inhibition. An interaction effect showed that child's social fearfulness and mother's overprotective behaviors affected adult-social inhibition.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31% of the variance.

Key Words : 아동의 기질(temperament), 어머니의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

* 접수 2002년 2월 8일, 채택 2002년 2월 22일

* 이 논문은 1999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99-042-D00178)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E-mail : obchung@korea.ac.kr

*** 메릴랜드 주립 대학교 인간발달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교수

I. 서 론

아동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황이나 새로운 상황에 접해서 나타내는 행동은 아동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어떤 아동들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낯선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거나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아동들은 주저하며 선뜻 새로운 환경에 다가가기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을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라고 일컫는데, 행동억제 성향은 비교적 지속적인 경향(stability)을 보이며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특히 동양에 비해 자기 주장적(assertive)인 행동특성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서구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행동억제는 자기 표현능력의 부족이나 자신감의 결핍으로 인식되고(Rubin & Asendorpf, 1993) 아동의 적응이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sendorpf, 1991; Kochanska & Radke-Yarrow, 1992).

그러나 행동억제의 발달이나 양육행동의 의미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 사실상 중국의 부모는 아동에게 복종이나 행동을 절제하기를 강조하고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가까이 있고 의존하기를 바라기(Ho, 1986) 때문에, 중국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오히려 아동의 행동억제가 또래간의 적응 및 학교 생활 등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en, Rubin, & Sun, 1992; Chen, Rubin, & Li, 1995; Wu, Chen, Yao, & Chen, 2000). 한편, 이태리연구(Zappulla, LoCoco, Maggio, & Sprini, 2000)에 의하면 행동억제를 나타내는 아동이 거의 없는 반면, 중국이나 한

국에서는 행동억제를 나타내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아(Chen, Hastings, Rubin, Chen, Cen, & Stewart, 1998; Park & Belsky, 1998), 아동의 행동특성은 문화에 비추어볼 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문화에 따라 사회화 또는 양육목표가 다르고, 따라서 같은 행동 특성이라도 문화에 따라 적응적인 의미는 달라진다. 이러한 동서양 철학의 차이 또는 연구 결과의 차이는 문화적 보편성이나 문화적 독자성에 대한 서구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서구 학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중국아동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행동억제에 관한 연구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사회전반에 걸쳐 경쟁적 사고 방식이 팽배해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행동억제에 대해 부모의 우려가 높아(도현심과 박성연, 1992; 박성연, 이사라와 박용임, 2000), 같은 동양문화권이면서도 중국과는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관점의 차이 및 행동억제 발달의 유사성을 가정하고 수행되고 있는 국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서 시도되었다.

1. 행동억제의 구성개념

한편, Kagan(Kagan, Reznick, Clarke, Snidman, & Garcia-Coll, 1984; Kagan, 1989)을 시조로 시작된 행동억제에 대한 관심은 지난 15년 동

안 사회-정서적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행동억제의 개념 및 그 구성적 요인, 측정 방법, 행동억제의 기원 등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를 자극하여 왔다. 특히 행동억제의 개념이나 구성적 요소는 측정방법이나 연구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되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 사회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형태의 행동억제는 ‘사회적 위축 행동’ 또는 ‘수줍음’으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 또는 사회적 행동억제(social inhibition)는 아동기에 사회적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회피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는 일반적인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의 구성적 요소와 유사하다(Rubin, 2001). 그러나 사회적 행동억제(social inhibition)는 어린 아기들이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모두가 포함된 낯선 상황에서 나타내는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이미정, 1998; Asendorpf, 1993). 대체로 행동억제 연구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이 혼용되기도 하나, 사실상 수줍음이나 사회적 위축의 개념보다는 행동억제라는 개념이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란 아동이 낯설거나 도전적인 상황에 처해서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등 정서적 불균형을 나타내는 반응양식이나 행동으로 정의되며(Kagan, 1989;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 Rubin, 2001) 대개는 낯선 사람과 낯선 물건이 있는 낯선 장소에서의 어린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을 통해 측정하게 된다. 즉, 어린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은 낯선이에게 자발적으로 말을 하거나 가까이 접근하는데 걸린 시간 또는 새로운 장난감에 가까이 가거나 그것을 만지는

데 걸린 시간 및 어머니와의 접촉시간을 통해 반영된다(Kagan, 1989; Rubin, Hastings, Stewart, Henderson & Chen, 1997).

전통적으로 행동억제의 지표로는 낯선 장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비사회적 행동억제(non-social inhibition)와 낯선 어른과의 관계가 포함된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억제(adult-social inhibition)를 합산하여 연구하여 왔다(Kagan et al., 1984; Park et al., 1997).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이 두 가지 행동억제가 서로 다른 특성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Kochanska(1991, Kochanska & Radke-Yarrow, 1992)는 2~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물건이 있는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낯선이에 대한 두려움은 서로 무관한 다른 구성적 개념일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행동억제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낯선 어른, 낯선 또래, 또는 낯선 물건이나 상황 등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일관성(cross-situation, cross-context consistency)을 주장한다(Asendorpf & van Aken, 1994). Rubin 등(1997)은 Asendorpf와 van Aken(1994) 및 Kochanska(1991)의 제안에 근거하여 두 가지 형태 각각의 행동억제와 전통적인 방식의 단일 지표로 행동억제와 또래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비사회적인 낯선 상황(non-social context), 낯선 어른과의 상황(adult-social context) 및 낯선 또래와의 상호작용(peer-social context) 상황 등 상황에 따라 행동억제 성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결국 행동억제는 다면적인 특성을 지녔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context-dependent), 각각의 상황에서 나타내는 행동억제와 관련된 선형 변인들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Kochanska 등(1991; Kochanska & Radke-Yarrow, 1992)은 2~3세 때 비사회적, 사회적 두 가지 행동억제 유형이 모두 높을 때만 5세의 또래 상황에서 행동억제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여 행동억제 정도에 따라 상황에 따른 안정성은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낯선 어른에게는 경계하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2~3세 아동도 비사회적인 상황에서는 행동억제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2~3세에 두 가지 형태의 행동억제가 모두 나타날 경우 이후의 다른 사회적 상황 즉, 또래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내는 행동억제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행동억제와 관련된 변인들 : 기질과 양육행동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동억제 연구들은 행동억제의 구성개념 외에도 행동억제의 기원 및 행동억제의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과 관련된 변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행동억제 연구는 행동억제의 기원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질이나 생리적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과 기질의 영향을 인정하기는 하나 환경적 요인인 양육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의 대표적 주자라고 할 수 있는 Kagan 등 (1984)은 행동억제의 기원을 생리적 이거나 기질적인 생물학적인 요인에 기초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Fox, Calkins와 Bell(1994), Calkins, Fox와 Marshall(1996)은 뇌의 생리체계의 특징이나 정서적 개인차를 행동억제 성향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생리적 기질적 근거를 주장하는 학자들

은 주로 미주신경계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이를 통해 행동억제를 나타내는 아동은 홍분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 정서조절 장애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alkins et al., 1996; Fox et al., 1994; Kagan, 1989; Rubin et al., 1997). 또한 행동억제가 높은 아동은 활동성이나 반응성이 높아 까다롭거나 쉽게 짜증을 내고(anger proneness) 사회적인 두려움(social fearfulness)을 많이 나타내는 등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Arcus, Gardner, & Anderson, 1992; Asendorpf & van Aken, 1994; Engfer, 1993; Mullen, Snidman, & Kagan, 1993; Park et al., 1997; Rubin et al., 1997).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가 높을 경우 접근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어(Calkins & Fox, 1992; Rothbart, 1988) 부정적 정서성 외에도 긍정적인 정서 역시 간접적으로 행동억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가 높으면 긍정적 정서가 높다는 식의 일차원적인 분석이 아니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이차원적인 개념이라고 본 Belsky, Hsieh와 Crnic(1996)의 주장에 근거하여 행동억제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아동이나 한국 아동의 경우 모두 부정적 정서가 높고 긍정적 정서가 낮을 때 3세 아동의 행동억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Park et al., 1997; 박성연, 1998) 긍정적 정서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기질과 행동억제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에서는 행동억제가 기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행동억제가 비교적 시간이 경과해도 지속성이 있는 특성, 즉 행동억제 성향이 안정적인 특성임(stability)을 강조한다(Brogberg, 1993; Kagan, Reznick, Snidman, Gibson, & Johnson, 1988).

한편 또 다른 입장으로, 양육행동의 역할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은 기질과 행동억제 간의 관계를 중요시한 연구(Kagan, 1989; Kagan, Snidman, & Arcus, 1993)에서도 그 둘간의 상관관계가 극단 집단(행동억제가 극히 높은 상위 15%)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고, 또한 행동억제가 극단적으로 높은 집단에서도 약 절반 정도만이 안정적으로 행동억제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연속성, 또는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측정오차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어떠한 법칙이 있는 비연속성(lawful discontinuity)’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Belsky & Pensky, 1988; Park et al, 1997). 행동억제성향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가장 중요한 관련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행동억제 연구가 활발해지기 이전에는 주로 아기의 까다로운 정서성이 어머니의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에 의해 변화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일관적으로 보고되어 왔다(Belsky, Fish, & Isabella, 1991; Washington, Minde, & Goldberg, 1986). 한편, 행동억제와 관련하여 Engfer(1993)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민감하지 못한 양육행동과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수줍음을 지속시킨다고(즉, 민감한 양육행동이 행동억제를 감소시킴) 보고하였다. Engfer(1993)와 같은 맥락에서 박성연(1998)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기질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지시, 통제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민감성이 낮은 양육행동을 할수록 행동억제를 많이 나타내었다. 또한 Rubin 등(Rubin, LeMare, & Lollis, 1990; Rubin, Stewart, & Chen, 1995)도 어머니의 민감성은 행동억제를 낮추고 과보호나 지나친 통제가 행동억제를 조장한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과는 반대로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행동이 오히려 행동억제를 가져온다는 결과도 있다. 예를 들어 Arcus 등(1992)의 연구에서는 아이의 까다로운 울음에 어머니가 반응적일 때 행동억제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Kagan(1994)은 어머니가 아기의 짜증을 용납하고 받아주면 불확실성에 대한 아기의 대처 능력을 저해하여 행동억제를 증진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단호하게 통제하고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여 양육하면 행동억제성향이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Park 등(1997)역시, 아기의 요구에 민감하고 애정적일 때 행동억제가 높고 비반응적이고 통제적일 때 행동억제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중국과 캐나다의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억제를 비교 연구한 Chen 등(1998)은 중국의 경우는 어머니가 수용적일 때 행동억제가 높았고 처벌적일 때 행동억제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는 정반대로 어머니의 처벌적 행동이 행동억제와 정적인 관련이 있고, 어머니의 수용적 태도가 높을수록 행동억제가 낮았다. 한편 Rubin 등 (1997)은 어머니의 과보호(oversolicitousness)가 행동억제를 높이며, 기질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어머니의 과보호 행동은 행동억제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Rubin, Rowand, Cheah, Fox, & Calkins, 1998). Sanson과 Rothbart(1995)는 비반응적인 양육행동을 행동억제와 관련된 양육행동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간의 불일치는 연구자들마다 양육행동의 측정 방법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특히 Chen 등은 그들의 연구결과를 문화적인 차이로 결론짓고 있으나, 앞에서 고찰한 박성연(1998),

Arcus 등(1992), Enger(1993), Park 등(1997), Rubin 등(1998)의 연구들과는 달리 기질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고 본다.

특히 같은 환경적 영향도 개인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Wachs와 Gandour(1983)의 유기체적 특수성 가설(organismic-specificity hypothesis)에 의하면 행동억제에 미치는 기질 및 양육행동의 영향은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동안 몇몇 소수 연구에서 행동에 관련된 선행 변인 또는 행동억제의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에 미치는 변인으로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Arcus 등(1992)은 영아기 때 부정적으로 반응적이던 아기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였으며 Park 등(1997)의 연구에서도 영아기 때 부정적인 정서성이 아주 높았던 경우 2~3세때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아 부모의 거부적 또는 간접적인 행동에 의해 행동억제가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박성연(1998)의 연구에서는 지시, 통제가 빈번하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 경우 행동억제가 높아졌으며 특히 긍정적인 정서성이 낮을 경우 이러한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다소 다른 결과이기는 하지만 역시 정서성 또는 기질과 양육 행동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지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Rubin 등(1997)도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 및 통제 행동이 높은 한편 아동의 단서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 2세 아동의 행동억제는 높으며, 두려움이 많은 영아가 어머니의 과보호 행동과 합쳐졌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양육행동 및 기질의 상호작용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최근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이 생물학적인 요소가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결정적이 아니며 (Rubin, 2001) 기질과 양육행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행동억제를 이해하는 진보된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2~3세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억제 발달에 관련된 변인을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위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행동억제 두 유형에 근거하여 비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행동억제를 분리하거나 또는 합산하여 분석함으로써 2세 아동의 행동억제의 구성적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3. 연구문제

1. 아동의 기질과 행동억제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억제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행동억제를 설명하는가? 아니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기질을 통제한 후에도 행동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아동의 행동억제는 사회적 상황과 비사회적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통해 행동억제 발달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은 물론, 문화에 따라 행동억제와 관련된 양육행동 변인이 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서구나 다른 동양문화와의 비교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2세 아동 113명(남아 55명, 여아 58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첫째, 연구자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 등의 소개로 일부의 피험자를 구하였다. 둘째, 인터넷의 여성·육아 사이트 20여 곳의 게시판에 피험자 모집 공고를 게재하고, 서울 S구 및 M구 소재 대형 아파트 단지(1000세대 이상) 6곳의 게시판에 피험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서울시 및 주변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 월령은 24.19개월이며 (SD 1.11),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1.15세였다(SD 3.21). 대부분(76.9%)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었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기질 척도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Goldsmith (1988)의 TBAQ(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TBAQ는 다섯 가지 기질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수준(activity level : 20문항), 사회적 두려움(social fearfulness : 19문항), 화를 잘냄(anger proneness : 28문항), 쾌활함(pleasure expression : 19문항), 관심도/지구력(interest/persistence : 22문항)이 그것이다. TBAQ는 7점 Likert type 척도로 ‘결코 그렇지 않다’가 1점, ‘항상 그렇다’가 7점을 받게 되어 있다.

TBAQ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가 .80 이상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1로 나타났다 (Goldsmith & Campos, 1990). 그리고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Goldsmith와 Riesen-Danner (1991)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우리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다음과 같다. 활동수준의 Cronbach α 가 .83이고, 사회적 두려움은 .87이며, 쾌활함은 .85이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Block(1981)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 Report)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Block의 CRPR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치를 설명하는 91장의 Q-sort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카드분류 방법은 주어진 91개의 카드를 읽고 자신의 영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이 카드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1)”에서 “이 카드들은 사실과 매우 같다(7)”까지 7개 수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즉, 91장의 카드 중 영어의 특성과 가장 일치하는 행동의 카드는 7에, 가장 일치하지 않는 행동의 카드는 1에 놓되, 각각 13장의 카드가 놓이도록 분류한다.

카드분류 방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에게 91장의 카드와 1에서부터 7까지의 분류된 카드를 담는 봉투를 주어진다. 먼저 어머니는 봉투를 개봉한 뒤, 카드를 대강 섞는다. 1에서 7이 적혀있는 봉투를 한 줄로 늘어놓고, 세 더미로 분류를 한다. 즉, 하나는 “대체로 사실과 비슷한” 내용의 카드를, 또 하나는 “사실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내용의 카드를, 나머지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카드들로 나눈다. 그 다음 “대체로 사

실과 비슷한” 카드 더미를 집어서, 그중 자녀에게 하는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카드 13장을 고른 후 이 카드들을 7번 봉투 위에 놓는다. 남아있는 카드 중에서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카드 13장을 뽑아 6번 봉투 위에 놓는다. 이때 만약 카드가 모자라면 “사실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내용의 카드 더미에서 좀더 비슷한 것을 가져온다. 다음으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카드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카드를 골라 1번 봉투 위에 놓는다. 그리고 난 후, “상당히 다른” 카드 13장을 뽑아 2번 봉투 위에 놓고, 이 경우도 카드가 모자라면 “사실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내용의 카드 더미에서 골라온다. 그 결과 39장의 카드가 남게 되며, 남은 카드를 가지고 각각 13장의 새로운 카드 더미 3개를 만든다. 즉, “어느 정도 비슷한 것(5번 봉투)”,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4번 봉투)”, 그리고 “어느 정도 다른 것(3번 봉투)”에 각각 13장씩이 들어가게 된다.

CRPR은 요인분석에 의해 민주적(6문항), 권위적(12문항), 과보호적(4문항) 양육행동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RPR의 신뢰도는 민주적 차원의 Cronbach α 가 .71이고, 권위적 차원이 .60이며, 과보호 차원이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행동억제 척도

아동의 행동억제는 낯선 사람과 낯선 물건이 있는 낯선 장소에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의 비사회적 행동억제는 자유놀이 1과 자유놀이 2(연구절차 참조) 중 유아가 어머니와 신체적으로 접촉한 시간(초)의 양의 2가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억제(adult-social inhibition)는 트럭,

로봇, 터널 에피소드에서 어머니와 접촉을 지속한 시간 및 낯선 사람이나 트럭·로봇에 가까이(유아의 팔이 닿을 정도로) 접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터널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트럭 에피소드에서는 다음 4가지 점수가, 로봇과 터널 에피소드에서 각각 2가지 점수가 이용되었다. 즉 트럭 에피소드 첫 1분간 어머니와 접촉한 시간 및 낯선 사람에게 스스로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낯선 사람이 유아에게 함께 놀자고 청한 후부터 1분간 어머니와 접촉한 시간 및 낯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하였다(만약 첫 1분 안에 유아가 낯선 사람에게 다가간 경우 이 값은 0으로 표시한다). 또한 로봇 에피소드에서 낯선이가 함께 로봇을 가지고 놀자고 청한 후부터 어머니와 접촉한 시간과 로봇을 만지기까지 걸린 시간의 2가지 점수와 터널 에피소드에서 낯선이가 터널 안에 있는 장난감을 꺼내달라고 한 후부터 어머니와 접촉한 시간 및 터널에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2가지 점수)을 기록하였다. 모든 시간의 단위는 ‘초’이며, 비사회적 행동억제 점수와 사회적 행동억제 점수의 총점과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각각 2개 점수와 8개 점수를 Z-변환 한 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각 행동 시간을 기록함에 있어서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표본의 5%를 이용하여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2001년 5월 초부터 7월 초에 걸쳐 총 3회, 매회 5~6시간씩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 중 1인이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7인을 대상으로 아동의 각 행동에 대한 시간기록 기준에 대한 정의와 예를 설명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함께 보면서 70% 이상 일치할 때까지 연습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우선 비디오를 관찰체계에 근거하여 관찰기록지에 전사하기 위해 연구대상 113개 중에서 무작위로 7개를 선정하였다. 초기의 두 차례의 훈련에서는 4개의 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보면서 관찰체계에 대한 보완·수정작업을 병행, 전사법을 확고히 하였다. 마지막 훈련에서는 나머지 3개의 비디오를 각자 관찰한 한 후 그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특히 신뢰도가 낮았던 항목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 중 1인과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7인이 함께 보면서 의견을 조율하였다. 행동억제 전체 에피소드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 평균은 87%이고, 범위는 77%에서 97%였다.

3. 연구절차

아동의 기질 척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영어로 된 질문지를 본 연구자들이 우리말로 번안하였다. 번안한 질문지를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자가 다시 역번역하였으며, 원래 문항과 일치하지 않는 문항은 본 연구자들이 토의를 거쳐 수정하였다. 우리말로 완성된 질문지를 어머니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유아의 행동억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각 유아-어머니 쌍에게 실험실 내 총 10개의 에피소드를 설정하였다. 실험실 에피소드 전체 소요 시간은 약 50분이다. 각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실험자인 낯선 사람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다. 각 에피소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와 어머니를 낯선 실험실로 안내한다. 실험실에는 어머니용의 큰 의자 한 개, 유아용 작은 의자 한 개, 유아용 작은 탁자 한 개, 유아용 장난감이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다.

에피소드 1 - 자유놀이 1 실험실에 들어 온 시간부터 10분간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미리 건네 준 질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유아는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도록 한다.

에피소드 2 - 장난감 정리 [낯선사람1]이 큰 바구니를 들고 방에 들어가 유아에게 장난감을 정리하라고 부탁한 후 실험실을 나온다. 3분 후 [낯선사람1]이 다시 들어가 장난감을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실험실을 나온다.

에피소드 3 - 트럭 [낯선사람2]가 덤프트럭과 장난감 블록 몇 개를 가지고 들어간다. [낯선사람2]가 1분간 혼자 앉아서 덤프트럭을 가지고 놀다가 그 동안 유아가 다가오지 않으면, 1분 후 유아에게 와서 함께 놀자고 청한다. [낯선사람2]가 들어온 후 2분이 지나면 덤프트럭을 가지고 실험실을 나간다.

에피소드 4 - 로봇 [낯선사람2]가 다시 로봇을 가지고 들어온다. 로봇을 바닥에 놓고 작동시켜서 소리가 나도록 한다. [낯선사람2]는 로봇을 가지고 들어온 후 30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30초 후 유아에게 함께 로봇을 가지고 놀자고 청하고 1분 더 로봇을 가지고 놀다가 로봇을 가지고 실험실을 나간다.

에피소드 5 - 터널 [낯선사람2]가 터널과 자동차를 가지고 실험실에 들어간다. 터널을 바닥에 놓고 완전히 편 후, 유아에게 터널 안 자동차를 꺼내달라고 청한다. 2분 후 터널과 자동차를 가지고 실험실을 나간다.

에피소드 6 - 좌절과제 이번에는 [낯선사람1]이 장난감 자동차와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통을 가지고 들어간다. [낯선사람1]은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준 후 어머니에게 주고 30초간 유아와 놀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노크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에게 자

동차를 플라스틱 통 속에 넣고 뚜껑을 닫으라고 일러준 후 나간다. [낯선사람1]이 나간지 30초가 지나면 노크를 한다. 이 때 어머니가 자동차를 플라스틱 통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어머니는 유아에게 통 속 자동차를 꺼내라고 격려하나, 뚜껑을 열어주지는 않는다. 자동차를 통에 넣은 지 1분 후 [낯선사람1]이 들어와서 플라스틱 통과 자동차를 가지고 나간다.

에피소드 7 - 만족지연과제 [낯선사람1]은 종이와 크레파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종이와 크레파스를 놓고 유아를 의자에 앉힌다. 유아에게 실험자가 나갔다 온 후에 크레파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일러준 후 나간다. 3분이 지난 후, [낯선사람1]은 처음에 가지고 나갔던 장난감 수납 바구니를 들고 들어간다.

에피소드 8 - 자유놀이 2 [낯선사람1]은 가지고 들어간 장난감을 바닥에 펼쳐놓고 어머니에게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리면 화장실 갔다온다고 얘기하고 방을 나오라고 말한다. 이 때 유아는 자유롭게 놀도록 한다. 3분 후, 어머니에게 노크로 신호를 한다.

에피소드 9 - 분리불안 어머니가 실험실에 유아를 혼자 두고 나온다. 어머니가 나온 지 1분이 지나면 [낯선사람3]이 들어간다. [낯선사람3]은 유아가 어머니를 찾을 경우 달래고 다른 장난감들을 건네며 놀도록 유도한다. [낯선사람3]이 들어간지 2분이 지나면 어머니가 노크를 하고 들어온다. 이 때 [낯선사람3]은 나간다.

에피소드 10 - 자유놀이 3 유아가 자유롭게 놀도록 한다. 6분이 지나면 실험자가 간식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자유놀이를 마친다.

위의 10가지 에피소드를 일방경을 통해 관찰하고 8mm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녹화하였다. 녹화된 비디오 자료 113개는 공동 연구자인 Rubin(Rubin et al., 1997)의 코딩범주에 따라 7명의 훈련된 관찰자가 나누어 코딩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자유놀이 1 .91, 장난감 정리 .89, 트럭 .97, 로봇 .94, 터널 .95, 좌절과제 .74, 만족지연과제 .80, 자유놀이 2 .89, 격리불안 .77, 자유놀이 3 .88 그리고 전체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피소드 1, 2, 3, 4, 5, 8을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첫째, 아동의 기질특성과 행동역제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질특성과 행동역제 각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역제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 세 요인과 아동의 행동역제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기질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역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행동역제에 대해 기질특성과 양육행동간의 상호작용 결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행동역제의 두 가지 구성개념인 비사회적 행동역제와 사회적 행동역제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기질과 행동억제간의 관계

아동의 기질과 행동억제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양 변인의 각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아동의 기질 가운데 사회적 두려움은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사회적 두려움이 높을 때 아동의 비사회적 행동억제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5, p<.05$). 사회적 두려움을 제외한 다른 네 가지 기질은 아동의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사회적 두려움, 쾌활함, 그리고 화를 잘냄 등의 기질은 사회적 행동억제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두려움과 화를 잘 냈던 요인은 사회적 행동억제와 정적 상관을 보여, 사회적 두려움이 높을 때($r=.34, p<.01$)와 화를 잘낼 때($r=.33, p<.01$) 아동의 사회적 행동억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쾌활함은 사회적 행동억제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아동이 기질적으로 쾌활할 때 낮은 사회적 행동억제를 보였다($r=-.23, p<.05$). 반면에, 아동의 활동수준 및 관심도/지구력과 같은 기질은 사회적 행동억제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 아동의 기질과 행동억제간의 관계

아동의 기질	비사회적 행동억제	사회적 행동억제
활동수준	.02	-.05
사회적 두려움	.25*	.34**
쾌활함	-.03	-.23*
관심도/지구력	-.08	-.07
화를 잘냄	-.05	.33**

* $p<.05$ ** $p<.01$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인 민주적, 권위적,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요인들 가운데 과보호적 양육행동만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억제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과보호적으로 양육할 경우 아동은 사회적 행동억제를 많이 보였다($r=.22, p<.05$). 양육행동 요인들 가운데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3.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아동의 기질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해 기질과 양육행동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상관관계 결과 가운데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억제간에 상호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사회적 두려움 ($\beta = .22, p<.05$) 및 쾌활함($\beta = -.24, p<.05$)과 화를 잘냄($\beta = .35, p<.01$) 등의 기질 모두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유의한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기질 가운데 하나인 아동의 사회적 두려움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beta = 2.00, p<.05$).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전체 변인들의 설명력은 31%였다(<표 2>).

참조).

〈표 2〉 아동의 쾌활함, 사회적 두려움 및 화를 잘냄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

모델	독립변인	β	R ²	ΔR^2	F	ΔR^2	F
	사회적 두려움	.22*					
1	쾌활함	-.24*					
	화를 잘냄	.35**					
			.24		8.02***		
	사회적 두려움	.20					
2	쾌활함	-.23*					
	화를 잘냄	.33					
	과보호적 양육행동	.09					
			.24	.00	.66	6.15***	
	사회적 두려움	-1.00					
	쾌활함	-.67					
	화를 잘냄	.89					
	과보호적 양육행동	-1.29					
3	사회적 두려움X						
	과보호적 양육행동	2.00*					
	쾌활함X						
	과보호적 양육행동	.94					
	화를 잘냄X						
	과보호적 양육행동	.99					
			.31	.07	2.33	4.69***	

*p<.05 **p<.01 ***p<.001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두려움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보자, 사회적 두려움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각각을 중앙값을 중심으로 상하집단으로 구분한 후, 과보호적 집단과 비과보호적 집단 각각에서 t-검증을 통해 사회적 두려움 수준에 따른 행동억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가 과보호적인 경우, 아동

의 사회적 두려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행동억제를 보였다($t=2.74$, $p=.01$). 반면에, 어머니가 과보호적이 아닌 경우는 아동의 사회적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아동의 행동억제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아동의 사회적 행동억제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

4.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사회적 행동억제

행동억제의 두 가지 구성개념인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사회적 행동억제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혹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양자간의 상관관계는 $r=.59(p<.01)$ 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제시한 기질 및 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간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사회적 행동억제의 관련변인은 사회적 두려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양자간의 상관관계 정도와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근거할 때,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사회적 행동억제는 상호 밀접한 관련은 있으나 서로 다른 구성개념인 것으로 파악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발달에 관련된 변인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세 아동 113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조사하고, 실험조사를 통하여 아동의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사회적 행동억제를 측정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과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기질특성 다섯 가지와 행동억제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사회적 행동억제의 경우, 아동의 ‘사회적 두려움’ 기질 특성과만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네 가지 기질 특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사회적 행동억제의 경우, 아동의 ‘사회적 두려움’ 외에도 ‘쾌활함,’ ‘화를 잘 냄’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활동 수준’이나 ‘관심도/지구력’의 기질 특성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낯선 상황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비사회적 행동억제는 아동이 기질적으로 ‘사회적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낯선 어른과의 관계가 포함된 사회적 행동억제는 비사회적 행동억제에 비해 아동이 기질적으로 ‘사회적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의 정도가 더욱 높을 뿐 아니라, ‘화를 잘 냄’과는 정적 상관을, ‘쾌활함’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회적 두려움’과 ‘화를 잘 냄’의 기질적 특성과 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행동억제간에 존재하는 유의한 상관관계는

Arcus, Gardner와 Anderson(1992), Asendorpf와 van Aken(1994), Engfer(1993), Mullen, Snidman와 Kagan(1993), Park 등(1997), Rubin 등(1997)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동억제가 높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서 ‘쾌활함’과 사회적 행동억제간에 존재하는 부적 상관관계는 Calkins와 Fox(1992), Rothbart(1988)가 밝힌 긍정적인 정서 역시 간접적으로 행동억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적 두려움’과 ‘화를 잘 냄’이라는 부정적 정서와 ‘쾌활함’이라는 긍정적 정서가 사회적 행동억제와 비사회적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점과, 사회적 행동억제의 경우 아동의 기질과 상관관계에서 그 방향이 긍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정서와는 정적 상관으로 나타난 점은 Belsky, Hsieh와 Crnic(1996), Park 등(1997), 박성연(1998)의 연구에서 시사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이차원적 개념이라는 관점이나 행동억제와 긍정적, 부정적 정서간 상호작용을 시사한 관점과 일치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비사회적 행동억제와는 상관이 없으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사회적 행동억제와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반응적일 때 행동 억제가 높다고 보고한 Arcus(1992), Kagan(1990), Park 등(1977), Chen(1998), Rubin 등(1997)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 아동의 기질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억제

와 비사회적 행동억제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의 기질적 특성 중 오직 ‘사회적 두려움’의 경우,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억제는 대부분 아동의 기질적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 다만 기질적으로 ‘사회적 두려움’ 성향이 높은 아동에게만 어머니가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아동의 사회적 행동억제가 높아진다. ‘사회적 두려움’ 성향이 낮은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낯선 상황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낯선 어른과의 관계가 포함된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억제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비사회적 행동억제가 높을 때 사회적 행동억제 역시 높았다. 양자간에는 비교적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사회적 행동억제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 (context-dependent)이라는 Asendorpf와 van Aken (1994), Kochanska(1991), Rubin 등(1997)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나,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성(cross-context consistency)이 있을 수도 있음을 주장하는 Kagan 등(1984), Park 등(1977)의 주장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 아동의 사회적 행동억제나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관련된 기질적 특성은 양자 모두 ‘사회적 두려움’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쾌활함’과 ‘화를 잘냄’의 기질적 특성은 사회적 행동억제와만 상관이 있다는 차이점도 발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연구 문제 4에서 제기한 쟁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가능

하게 한다. 즉,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사회적 행동억제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으나 차이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같은 생물학적 요소가 아동의 사회적 행동억제를 대부분 설명하나, 기질과 양육행동간의 상호작용 또한 중요한 설명력을 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행동억제를 대부분 설명한다는 점에서 행동억제 성향이 안정적인 특성이라는 주장을 하는 Broberg(1993), Kagan, Reznick, Snidman, Gibson과 Johnson(198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과보호적’인 행동이 아동의 행동억제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어떠한 법칙이 있는 비연속성’이라는 주장을 하는 Belsky와 Pensky (1988), Park 등(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기질적으로 ‘사회적 두려움’성향이 높은 아동에게 어머니가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아동의 행동억제가 증가된다는 점에서 행동억제가 유기체적 특수성 가설에 입각한다고 주장하는 Wachs와 Gandour(1983)의 관점과 일치한다. 넷째,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기질과 양육행동간의 상호작용효과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생물학적인 요소가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결정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Rubin (2001)의 연구 경향과 대체로 부합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기질과 양육행동간의 상호작용효과이다. 아동이 비록 기질적 성향이 같더라도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아동의 행동억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아동의 경우, 부

모의 양육행동이 과보호적일 때는 아동의 행동 억제가 강화되나, 반대로 부모가 과보호적이 아니며, 지나친 걱정과 우려가 없는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두려움이 많은 아동의 행동억제는 완화된다. 즉, 아동의 행동억제 발달에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 행동이 두려움 많은 아동의 기질적 성향에 대하여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실시되는 8개국 국제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막 1차 연도의 자료가 수집, 분석된 것이다. 앞으로 아동이 4세가 되었을 때, 낯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라는 또 다른 상황이 추가된 실험이 진행되면, 또래간 낯선 상황과 낯선 사람을 더 첨가시키게 된다. 그러면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의 규명은 물론 행동억제의 연속성/불연속성, 유기체적 특수성 가설, 사회적 행동억제와 비사회적 행동억제의 구성 개념상의 공통점/차이점이 더욱 확실하게 규명되리라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적, 비사회적 상황은 충분히 다양하지 못했다. 8개국 공동 연구의 일환이다 보니 객관적 측정에만 연구의 관심을 두어 실험실에서의 낯선 상황과 낯선 어른만을 다루었다. 둘째, 표집 방법과 조사대상

자의 수와 관련된 결과의 일반화 문제이다. 또한 분석 방법에 따라 대상 집단수가 소수인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소수의 유아와 어머니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얻은 결과는 그 안정성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행동억제에 대한 연구에서 그 동안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던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이들의 행동억제를 기질과 양육행동을 통제한 실험 상황에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는 점, 세계 8개국에서 사용한 동일한 연구 설계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유아의 행동억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세계인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준다. 이 연구 자료 및 추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의 행동억제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양육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행동억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 행동, 그리고 이 변수들간의 상호작용 효과 등은 장기간의 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만큼, 1차년도 횡단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내린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삼아 추후 종단 연구에서 이 변수들이 계속 추적 연구된다면 그 결과는 그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도현심·박성연(1992). 한국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1), 325-338.

박성연(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억제. *대한가정학회지*, 36(4), 19-33.

박성연·이사라·박웅임(2000). 어머니의 전통적 가치관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85-95.

이미정(1998). 3세 여아의 행동억제와 그 관련변인: 영아기 정서성, 부모의 내향성, 부모의 양육행동

- 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 구논문.
- Asendorpf, J. B. (1993). Beyond temperament : A two-factorial coping model of the development of inhibition during childhood. In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pp. 265-290). Hillsdale, NJ : Erlbaum.
- Asendorpf, J. B. (1991). Development of inhibited children's coping with unfamiliarity. *Child Development*, 62, 1460-1474.
- Asendorpf, J. B., & van Aken, M. A. G. (1994). Traits and relationship status : Stranger versus peer group inhibition and test intelligence versus peer group competence as early predictors of later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86-1798.
- Arcus, D., Gardner, S., & Anderson, C. (1992). *Infant reactivity, maternal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behavioral profiles*. Paper presented in a Symposium on Temperament and Environment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Infant Studies, Miami.
- Belsky, J., Fish, M., & Isabella, R. (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21-431.
- Belsky, J., Hsieh, G., & Crnic, K. (1996). Infant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 One dimension or two? *Developmental Psychology*, 32, 289-298.
- Belsky, J., & Pensky, E. (1988).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 :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R.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pp. 193-217). Oxford : Clarendon Press.
- Broberg, A. G. (1993). Inhibition and children's experiences of out-of-home care. In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pp. 151-176). Hillsdale, NJ : Erlbaum.
- Calkins, S. T., & Fox, N. A. (1992). The relations among infant temperament, secur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al inhibition at 24 months. *Child Development*, 63, 1456-1472.
- Calkins, S. T., Fox, N. A., & Marshall, T. R. (1996).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antecedents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523-540.
- Chen, X., Hastings, P. D., Rubin, K. H., Chen, H., Cen, G., & Stewart, S. L. (1998). Child-rearing attitudes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Chinese and Canadian toddlers : A cross-cultur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77-686.
- Chen, X., Rubin, K. H., & Sun, Y. (1992). Social repu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 : A cross-cultural study. *Child Development*, 62, 1336-1343.
- Chen, X., Rubin, K. H., & Li, Z. (1995). Social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1, 531-539.
- Engfer, A. (199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hyness in boys and girls : A 6-year longitudinal study. In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pp. 49-80). Hillsdale, NJ : Erlbaum.
- Fox, N. A., Calkins, S. D., & Ann Bell, M. (1994). Neural plasticity and development in the first two years of life : Evidence from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domains of researc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677-696.
- Ho, D. Y. F. (1986). Chinese pattern of socialization : A critical review. In M. H. Bond (Ed.), *The*

-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pp. 1-37). NY : Oxford Univ. press
- Kagan, J. (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674.
- Kagan, J. (1994). *Galens Prophecy : Temperament in human nature*. Basic Books.
- Kagan, J., Reznick, S., Clarke, C., Snidman, N., & Garcia-Coll, C. (1984).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2212-2225.
- Kagan, J., Snidman, N., & Arcus, D. (1993). On the temperamental categories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In K.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pp. 19-30). Hillsdale, NJ : Erlbaum.
- Kagan, J., Reznick, S., Snidman, N., Gibbons, J., & Johnson, M. (1988). Childhood derivatives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9, 1580-1589.
- Kochanska, G. (1991). Patterns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in children of normal and affectively ill mothers. *Child Development*, 62, 250-263.
- Kochanska, G., & Radke-Yarrow, M. (1992). Early childhood inhibition and the dynamics of the child's interaction with an unfamiliar peer at age five. *Child Development*, 63, 325-335.
- Mullen, M., Snidman, N., & Kagan, J. (1993). Free-play behavior in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6, 383-389.
- Park, S. Y., & Belsky, J. (1998). *South Korean mothers' westernization and orientation toward child inhibition*. Paper presented at ISSBD in Bern, July.
- Park, S. Y.,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Rothbart, M. K. (1988).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pproach. *Child Development*, 59, 1241-1250.
- Rubin, K. H. (2001). 아동의 기질 및 또래 상호작용과 부모의 양육행동. 고대특강자료집.
- Rubin, K. H., & Asendorpf, J. B. (1993).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 Conceptual and definition issu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pp. 3-18). Hillsdale, NJ : Erlbaum.
- Rubin, K., Rowand, C., Cheah, C., & Calkins, S. (1998). *Temperament, parenting, and the display of social reticence in preschoolers*. Paper presented at ISSBD in Bern, July.
- Rubin, K., LeMare, L. J.,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 Stability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57, 237-255.
- Rubin, K. H., Stewart, S.,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pp. 255-284). Hillsdale, NJ : Erlbaum.
- Rubin, K. H., Hastings, P. D., Stewart, S., Henderson, H. A., & Chen, X. (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 467-483.
- Sanson, A., & Rothbart, M. K. (1995).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pp. 299-321), Hillsdale, NJ : Erlbaum.
- Wachs, T. D., & Gandour, M. J. (1983). Temperament, environment, and six-month cognitive-intellectual development : A test of the organic specificity hypo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6, 135-152.
- Washington, J., Minde, K., & Goldberg, S. (1986).

- Temperament in preterm infants : Style and stab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 493-502.
- Wu, C., Chen, H., Yao, T., & Chen, X. (2000). *Inhibition, coping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childhood*. Paper presented in ISSBD, Beijing, July.
- Zappulla, C., LoCoco, A., Maggio, R., & Sprini, A. (2000). *Behavioral inhibition in Italian toddlers : The role of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 Paper presented in ISSBD, Beijing, July.